

지난해 국민 1인 하루평균 3시간 11분 TV 시청

지상파 3사 KBS·MBC·SBS는 하향세... 종합편성채널 MBN·채널A·TV조선·JTBC는 상승세

지난해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3시간 11분 텔레비전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상파 방송사의 점유율 하락과 종합편성채널의 점유율 상승세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고정형TV 실시간 시청기간 기준)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TV 방송에 대한 시청자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TV 시청 가구(시청자)를 TV 보유가구(시청자)로 나눈 비율인 시청률과는 다른 개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191분으로 전년 대비 7분 줄었다. 주요 채널별 시청점유율을 보면 지상파 3사(KBS·MBC·SBS)는 내림세, 종합편성 채널(MBN·채널A·TV조선·JTBC)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상파 3사는 2011년 80.44%, 2012년 59.41%, 2013년 54.09%, 2014년 51.63%, 2015년 47.22% 등으로 시청점유율이 하락했다. 지상파 3사 시청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5년이 처음이다.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포함한 시청점유율도 2011년 71.87%, 2012년 69.73%, 2013년 64.21%, 2014년 61.28%, 2015년 58.20%로 내림세다.

반면 종편은 2011년 12월 0.29%, 2012년 5.02%, 2013년 8.91%, 2014년 11.81%

2015년 13.91%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MMPP 중에서는 CJ계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CJ 계열 PP 시청점유율은 2011년 8.34%, 2012년 8.66%, 2013년 7.91%, 2014년 7.71%, 2015년 9.33% 등으로 하락 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CJ E&M 계열 PP인 tvN은 올해 3.66%로 전년 1.85% 대비 급상승했다.

반면 티캐스트 계열 PP 시청점유율은 2011년 3.32%, 2012년 2.59%, 2013년 2.82%, 2014년 2.61%, 2015년 2.36%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요 채널별 시청점유율을 보면 지상파채널은 KBS1(13.21%), MBC(12.24%) 본사+지역사 합산), KBS2(11.28%), SBS(5.73%), EBS1(1.95%) 순으로 집계됐

다. 종편은 MBN(4.21%), 채널A(3.52%), TV조선(3.24%), JTBC(2.94%) 순이다. 이번 시청점유율 조사는 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00가구를 대상으로 고정형 TV로 방송되는 TV방송채널 546개를 대상으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에 방송사업 경영·주식·지분 소유 일간신문사의 유료가구 구독부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한 2015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6월 발표한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시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정해은기자



이종혁



유선

전주국제영화제 사회자 선정

뮤지컬 '시카고'의 이종혁과 영화 '이끼'의 유선 같이 호흡

제 1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의 공동 사회자로 배우 이종혁과 유선이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 육목주차장에 조성되는 야외상영장에서 영화축제의 막을 연다. 개막식 사회를 맡은 두 배우는 전주국제영화제와의 인연도 각별하다. 이종혁은 <바람피기 좋은날>(감독 장문일)로 제8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았고, 유선은 전주국제영화제의 핵심 프로젝트인 '디지털산인삼색 2000(現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 <뽕스 밧고 담벼락>(감독 박광수)의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바 있다. /정해은기자

가수 김다나, 창법 바꾼 3집 '별들에게 물었죠' 발매

5월 13일 품바왕 명인전에 초대가수로 노래 선사



가수 김다나씨는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전주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최근 정규앨범 3집 '별들에게 물었죠'를 발표한 가수 김다나(34)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전주의 한옥마을을 전국에 홍보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다나는 지난 14일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새 앨범의 특징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이번 앨범은 기존의 새미트 로트에서 창법을 바꿔 새로운 시도를 했다"며 "앨범에 수록된 '별들에게 물었죠'와 '눈꽃꽃이 재 가수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것 같다. 기대하시어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7년이라는 오랜 기간 가수생활을 가장 힘든 점은 묻는 질문에 "평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활동이 바쁘다보니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아 힘들다"며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다.

전국의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유독 전주가 애정이 간다고 밝히며 눈길을 끌었다. 5월 13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제3회 품바왕 명인전'에 초대가수로 참석 예정인 김다나는 "전주는 당숙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고, 저를 믿고 사랑해 주시는 팬들도 유독 많아 제2의 고향과 다름없는 곳이다"며 "특히 최근 많이 알려지고 있는 한옥마을 홍보에 힘써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다나는 앨범 발매와 동시에 노래40곡과 DVD가 들어있는 노래20곡을 수록한 트로트 메들리 앨범 '한번 들어봐요'를 발표했다. 메들리 앨범은 전국 모든 휴게소 하이숍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정해은 기자

포털뉴스, 네티즌 '낯선' 걸 방지하려면?

단행본 2권 발간... "네이버·카카오 뉴스 검색 알고리즘 공개해야"

A 언론사는 기사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제목에 섞어 넣었다. 제목만 보고 기사를 클릭한 네티즌은 엉뚱한 본문을 보고 실망했다. 네티즌을 낯선 책임은 포털과 매체 중 어느 쪽이 더 클까. 국내 미디어 쟁점을 다룬 단행본 2권이 잇따라 나왔다. 김병희 서울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뉴스 어뷰징과 검색 알고리즘(커뮤니케이션북스·심재철 공저)과 '광

고로 보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소비문화사(서울경제경영)를 내란히 선보이며 인터넷·미디어 업계에 날카로운 시선을 드러냈다. 현재 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를 심사하는 제3의 독립기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소위는 뉴스 어뷰징을 제재하는 역할이다. 김 교수는 "뉴스 어뷰징은 디지털화된

뉴스를 포털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국내 언론의 특수한 현상"이라며 "서양의 디지털 미디어 이론으로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뉴스 어뷰징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저서 '뉴스 어뷰징과 검색 알고리즘'은 미디어 업계 논쟁적인 뉴스 기사 어뷰징 문제를 규명하고 전략적 대안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책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구성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포털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순간에는 기사 평가 요인, 미디어 평가 요인, 뉴스 유통 요인이라든가 세가지 핵심 요인을 고

려해야 한다. 아울러 뉴스 어뷰징을 막기 위해 포털뿐 아니라 언론사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 교수는 "뉴스 어뷰징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미디어업계 자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행 신문법에 어뷰징 범위와 방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사사제 청구권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고로 보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소비문화사'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미디어 기술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정해은기자

혼불기념사업회, 손글씨 공모전

혼불기념사업회는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날아가는 지렁이 고사리손에 잡히다' 공모전을 마련한다. 참가대상은 전국 초등학교로 응시자들은 손으로 직접 쓴 편지와 일기 작품을 최명희문학관으로 오는 5월 2일~9일 3일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1명)에게는 전라북도교육감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되는 등 총 54명의 학생에게 시상한다. 이 공모전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만년필 쓰기를 고집했던 소설가 최명희의 삶과 문화 열정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이 매년 개최한다. 자세한 문의 063-284-0570. /정해은 기자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연주회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특별 연주회 '샤르팡티에의 신성한 이야기'가 오는 5월1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17세기 프랑스 교회음악의 거장인 바르크 앙투안 샤르팡티에가 작곡한 다양한 곡들이 연주되며, 공연은 인터미션을 포함 1부 '최후의 심판' (20분) 유디트 (40분)와 2부 '유아 학살' 등 순으로 진행된다. 관람객은 올리비에 슈노블리의 지휘와 베르시유궁전 바로크음악센터 합창단의 하모니를 통해 프랑스 왕정 스타일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무대는 전주사와 전북대 인문영상연구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한·불 수교 130주년 '한·불 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연티켓은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이다. 문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70-8000.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18일>

<p>▷ 쥐띠 46년생: 손아래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 60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72년생: 죽은 일하디가 될 맞는 귀이다. 나서지 말고 자중하라. 84년생: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생기고 구설이 따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p>	<p>▷ 소띠 49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61년생: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라. 73년생: 어려움이 생긴다면 옆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85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상태가 아니니 중요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던지 타인과 상의하라.</p>	<p>▷ 호랑이띠 50년생: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욕심만 부리지 않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74년생: 주변사람의 도움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성사. 86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몇 사람의 조언을 구해보라.</p>	<p>▷ 토끼띠 51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인연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 75년생: 귀인의 협조가 따르는 운이니 혼자야 아님을 명심하라. 87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다.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p>
<p>▷ 용띠 52년생: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 앞을 내다보아야 할 때. 64년생: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위기와 기회는 얻을 수 있는 운.7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운. 88년생: 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p>	<p>▷ 뱀띠 53년생: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는 운. 65년생: 자신은 갖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운이다. 77년생: 옛 사람에게 잊지않아 잘 풀리는 운이다. 89년생: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운으로 집중력이 저하된다.</p>	<p>▷ 말띠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66년생: 지금은 자숙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내실을 다져라. 78년생: 주변의 권고를 돈독하게 재검토해야 할 운이다. 90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운이다.</p>	<p>▷ 양띠 55년생: 베풀면 덕이 되어 들어오는 운이다. 67년생: 지나친 과단은 부작용을 불러온다.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용이한 운이니 독단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진행하면 길하다. 91년생: 때로는 겸손한 언행이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법이다.</p>
<p>▷ 원숭이띠 56년생: 상상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운. 68년생: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8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랄만한 일이 발생하는 운.92년생: 손윗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인 거저야 하는 때다.</p>	<p>▷ 닭띠 57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우려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69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81년생: 고집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아해 하는 요소가 되니 주의하라. 9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라.</p>	<p>▷ 개띠 48년생: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변동수가 갖는 것은 좋지 않다. /정해은기자 60년생: 심혈관계통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니 조심하라. 70년생: 매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서 자중해야 82년생: 몸이 상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고 실수가 따르는 운.</p>	<p>▷ 돼지띠 47년생: 변화가 추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현상유지가 해답이다. 59년생: 정신이 산만한 운이다. 사소한 실수로 구설이 오니 주의하라. 71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함께 해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8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p>